

배나무 가지치기 상처, 바로 치료해야 썩음병 막아

가지치기 뒤 2일 안에 도포제 바르면 병 예방 효과 우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배나무 가지치기를 한 뒤 2일 안에 도포제를 처리하면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과수원에서는 안정적인 열매 생산을 위해 잎이 진 뒤부터 이듬해 3월 까지 새 열매가지가 나오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이때 가지를 자르며 생기는 절단 부위, 즉 상처 부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무가 곰팡이균에 감염돼 가지가 썩어들어가는 심재썩음병이 나타나기 쉽다. 주 가지가 병균에 감염되면 10

년 이상 다 자란 나무의 경우, 열매가 지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은 가지치기 뒤 심재썩음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포제 처리 효과를 실험했다.

배나무 가지치기를 마친 뒤 2일 안에 바르는 형태의 도포제를 처리한 결과, 병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다. 반면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절단 부위 지름의 66.9%에서 썩음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마친 농가는 서둘러 도포제를 발라줘야 한다. 도포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꽃가루 수급 우려에 대응해 '추황배', '슈퍼골드' 등의 꽃가루를 직접 생산 인공수분에 활용하려는 농가는 가지치기 시기를 2월 하순 이후로 늦춰야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심재썩음병은 배뿐 아니라 다른 과수류에도 발생하는 병이다. 한창 수확량이 증가하는 어른 나무의 가지치기 관리를 잘못해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과수 농가에서는 가지치기 뒤 상처 부위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배나무 가지치기 후 도포제를 바른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북농협은 9일 참예우조공법인 3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전북축협운영협의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 임직원들, 새해 새출발 다짐

전북농협, 전북축협운영협의회 올해 첫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9일 참예우조공법인 3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전북축협운영협의회 회를 개최하여 가축질병 차단방역 등 축산부문 당면 현안 논의와 관내 기관장 신년인사, 감사패 전달 등을 실시, 축산 임직원들이 힘찬 새출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관내 10개 축협 조합장,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전북도(이희선 축산과장 이상호 동물방역과장, 박태욱 동물위생시험소장), 남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장, 송규봉 한국축육산업협회 전북본부장, 농협 전북본부 이정완 임인 부분부장,

축산계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협 경제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이희선 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장 명의 감사패를 전달했고, 가축질병 차단방역, 한우 유전체분석사업 추진, 한우뿌리농가 육성, 스마트 가축시장 추진, 더 해파리전달, 나눔축산운동 등 축산 현안을 논의했다.

김사중 협의회장(고창부안축협 조합장)은 "정통의해 감진년 새해에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친밀한 전북축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식품유통공사, 글로벌 K-푸드 페어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글로벌 K-푸드 페어 사업을 8개국 8회로 확정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200여 농수산물품 수출업체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K-푸드 페어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통합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시장 거래선 발굴을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K-푸드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함께 추진하며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미국 뉴욕 △중국 광저우 △일본 도쿄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랑스 리옹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8개국 8회 개최 특히 중국 남부 거대시장 '광저우', 프랑스 중남부 거점 리옹 등 2선 도시와 중남미 멕시코시티, 중동 두바이 등 개최지로 선정해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 미·중·일·아제안·유럽 등 7개국 7회 K-푸드 페어를 개최해 총 256개 수출기업이 2억 4,881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2918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달성했다.

특히 상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계약실적이 직전년보다 78% 증가해 참가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사전 시장진행보고서 △K-푸드 페어 상담장 내 상담 공간 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 △1:1 바이어 매칭 지원 △업체별 통역원 1인 배정 △페어별 참가업체 1인 왕복 출장 항공비(1백만 원 한도) △B2C 마케팅 테스트 대행(제품비자 부담) 등이다. /김재훈 기자

'20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건협 전북도회, 회원사 대표이사·임원 200여명 참석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9일 전북도회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업 실적신고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연동여부 판단, 연동시 세부절차, 미연동 함의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실적신고 강습회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전문·기계설비회계 통합실적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변경된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고 방법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재철 전북도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법·제도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9일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업 실적신고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 협회는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친환경 연료 활성화 기반 마련"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

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유업체가 우려를 제기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자원안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부장 산업법·공급망 기본법과 '3법' 완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비상 시 위기대응본부를 꾸려 수급안정 조치를 취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원안보법의 통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법 개정안,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해외존도가 높아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원안보법은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핵심광물·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평시에는 이를 비축하고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며 공급망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국내의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위기대응 본부를 구성해 수급안정조치와 함께 이들의 국내 빈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 3법'에는 지난 6월13일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26일에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이 있다.

한편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림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